

- 주요 뉴스: 미국 5월 생산자물가, 예상치 하회,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 시사
 -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수요는 예상보다 양호, 재정 우려도 다소 완화
 - ECB 주요 인사,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근접 관련 상반된 의견 제시
 - 일본 총리, 對美 조기 관세 합의보다 국익이 우선, 일본은행은 금리 동결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예상치 하회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 양호한 국채 입찰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Oracle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관련 우려 등으로 0.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부진한 주간 고용지표 등을 반영하여 3년 만에 최저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8%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0년물 국채 입찰에서의 양호한 수요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6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52.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55.1원, 0.26% 하락). 한국 CDS 강보합

		6/12일	6/11일	전일대비			6/12일	6/1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45.3	6,022.2	+0.38%	국채 금리 10y	미국	4.36%	4.42%	-6bp
	유럽	549.84	551.64	-0.33%		독일	2.48%	2.54%	-6bp
	중국	3,402.7	3,402.3	+0.01%		영국	4.48%	4.55%	-7bp
	일본	38,173	38,421	-0.65%	CDS 5y	한국	27bp	27bp	+0bp
	한국	2,920.0	2,907.0	+0.45%		중국	44bp	43bp	+1bp
환율	달러지수	97.85	98.63	-0.79%	위험 지표	EMBI+	-	368	-
	유로화	1.1584	1.1487	+0.84%		VIX	18.02	17.26	+4.40%
	엔화	143.48	144.56	+0.75%		WTI유	68.04	68.15	-0.16%
	위안화	7.1727	7.1903	+0.25%	원자재	구리	483.6	481.5	+0.44%
	원화	1,358.7	1,375.0	+1.20%		금	3,385.9	3,355.1	+0.9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5월 생산자물가, 예상치 하회.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 시사

- 5월 헤드라인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월간 상승률은 0.1%로 전월(-0.2%) 대비 올랐으나 예상치(0.2%) 하회. 연간 상승률은 2.6%로 전월(2.5%) 대비 오름세 강화되었으나 예상치(2.6%) 부합. 근원 PPI의 경우 월간 상승률(0.1%)이 전월(-0.2%) 대비 올랐지만 예상치(0.3%) 대비 낮은 수준이었고, 연간 상승률(3.0%)은 전월(3.2%) 및 예상치(3.1%)를 모두 하회
- 5월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도 대체로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를 나타내 시장에서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당초 우려와 달리 아직 강하지 않다고 평가(HFE). CME의 FedWatch는 계속해서 금년 2회(9월 및 12월, 각 0.25%p)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6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24.8만건으로 8개월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연속 청구건수(2주 이상 청구)의 경우 195.6만건으로 '21년 11월 이후 최고치. 아직 기업에서 대규모 해고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고용 여건이 점차 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자동차 생산 확대를 위해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 아울러 교역국과의 무역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이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상무부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철강에도 25%의 관세를 23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파월 의장을 해고하지는 않겠지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면서 공개 연설에서 비난. 베센트 재무장관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2조 달러까지 확대되고, 달러화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수요는 예상보다 양호. 재정 우려도 다소 완화

- 22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입찰에서 응찰률이 상승(2.31배→2.43배)했고, 낙찰 수익률(4.844%) 역시 발행 전 수익률 대비 1.5bp 하락. 양호한 장기물 수요가 확인되면서 재정 관련 우려는 다소 완화. 다만 일부에서는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 고려 시 국채수익률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Oxford Economics)

■ JPMorgan의 다이먼 회장, 미국 경제지표 악화될 소지. 물가 상승 및 고용 둔화 예상

- 다이먼 회장은 미국 경제지표들이 곧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 7~10월에 주요 정책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소폭의 물가 상승 및 고용 둔화를 예상한다고 부연. 다만, Goldman Sachs는美中 무역협상 타결, 정책 불확실성 완화 등을 이유로 미국의 1년 내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을 하향(35%→30%)

■ ECB 주요 인사,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근접 관련 상반된 의견 제시

- 슈나벨 이사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악화가 일시적 현상이기에 금리인하 사이클은 단기간 내에 종료될 수 있다고 주장. 또한 현 금리는 적절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 반면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인 심크스 위원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예상보다 감소하고 있다면서 금리인하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독일의 경제연구소 IFO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이유로 금년과 내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각각 0.2%→0.3%, 0.7%→1.5%)

■ 중국 리창 총리, 국제통화 시스템 개혁 등에서 ECB와의 협력 강화할 방침

- 리창 총리는 ECB 라가르드 총재와의 회담에서 서로 간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 특히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협력만이 상호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

■ 일본 총리, 對美 조기 관세 합의보다 국익이 우선. 일본은행은 금리 동결 예상

-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기 합의를 위해 국익을 해치지 않는 것이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한편 아사히신문 등의 주요 매체는 일본은행이 다음 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내부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대외 불확실성도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1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및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 유로존 4월 산업생산, 독일 5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美中 무역전쟁, 수출 통제를 통한 공급망 무기화 등이 쟁점 - WSJ

(Supply Chains Become New Battleground in the Global Trade War)

- 이번 美中 무역협상에서 관세보다 수출 통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 중국은 희토류 자석과 핵심 광물의 對美 수출 재개에 합의했지만 6개월로 기한을 제한하여 무역 긴장 재발 시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
- 한편 중국은 글로벌 제조업 생산의 1/3을 차지하며 여러 분야에서 주도권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우위. 이에 양국은 각각 생산 기반과 기술력을 무기화하면서 공급망 갈등이 심화.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을 별개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공급망 이원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연준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제어 승리 선언하고 차후 상황 대비할 필요 - 블룸버그

(The Fed Can Now Declare Victory Over Inflation)

- 올해 공개된 주요 물가지표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연율 2%)를 상회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도 동시에 제시. 대체로 양호한 고용과 성장의 추이 아래 5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 추세는 연준이 팬데믹 시대의 물가 상승 억제 역할을 끝냈다는 선언을 공표하기에 충분
- 한편, 승리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단계인 금리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 아울러, 연준은 금리 정상화로 인플레이션 2% 이하의 시대가 다시 찾아올 수 없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중립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 이는 다음 경제 위기에서 연준의 대응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일 가능성

■ 최근의 달러화 약세, 구조적 脫달러화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 - Reuters

(Watch out for dollar FX fall more than 'de-dollarization')

- 트럼프 2기 이후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脫달러화 우려가 증폭. 하지만 달러화 자산에 대한 대규모 이탈 징후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 오히려 일각에서는 지난 10년간 미국 연방부채가 급증하는 등 달러화 자산 수요가 양호하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지적(BofA). 또한 그림자 금융을 통한 비공식적인 달러화 부채도 대폭 증가
- 결과적으로 최근의 달러화 약세는 대규모 脫달러화가 아닌 단기적 환율 조정과 환헤지 수요에 의한 현상으로 해석될 필요. 현재 시장에서 환헤지 조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달러화 가치에 대한 하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

■ **글로벌 자산운용,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위험이 핵심 변수로 부상 - Financial Times**

(Dollar weakness is turning all fund managers into currency traders)

-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달러화 가치는 7% 하락. 지난 수년간 ‘미국 예외주의’ 환경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환위험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투자 핵심 변수로 부상. S&P500지수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유로화로 환산할 경우 연초 대비 7% 이상 하락한 상태
- 한편 BNP Paribas에 따르면, 유로존 연금펀드들은 대규모의 미헤지 달러화 자산(약 7,700억 달러)을 보유 중. 만일 투자자들이 달러화 헤지를 5%p 늘리면 약 2조 달러의 매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RBC)
- 달러화 가치가 급락한다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추정. 하지만, 현재처럼 점진적 약세가 이어지는 여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자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의 통화정책, 관세와 재정정책 우려 속 관망 기조 유지할 전망 - Reuters**

(Is the Fed still in a 'good place'?)

■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위협 예고, 달러화의 추가 하락 유도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Dollar sinks to three-year low on Trump tariff threat)

■ **미국과 EU의 무역협상, 합의 도출 어려움으로 시장 불확실성 지속될 소지 - Reuters**

(US trade war enters precarious slow grind)

■ **EU의 방위력 강화, 유럽-미국의 동맹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Financial Times**

(Strengthening EU defence won't undermine the transatlantic alli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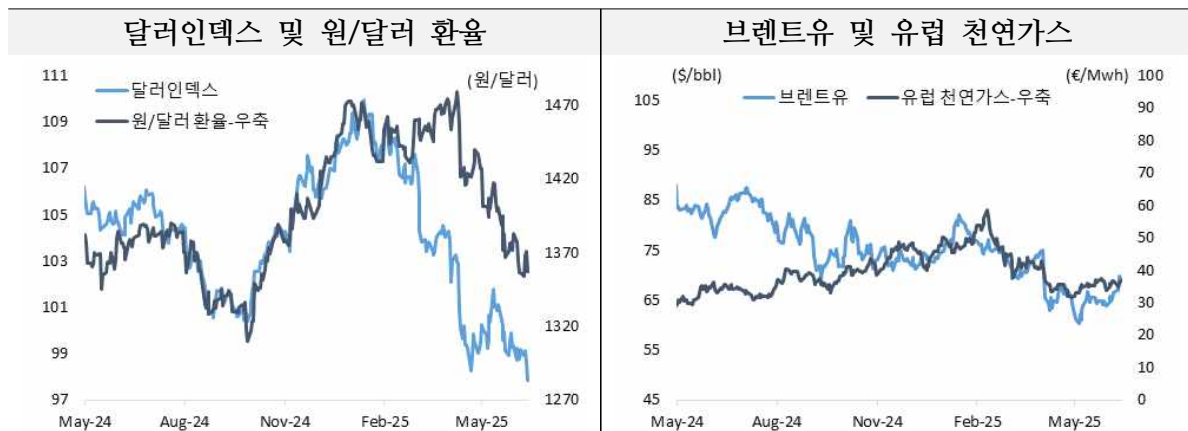
■ **글로벌 석유산업, 수요-공급투자 전반에서 새로운 장기 하강 국면이 시작 - 블룸버그**

(Oil's Lost Decade Is About to Be Repe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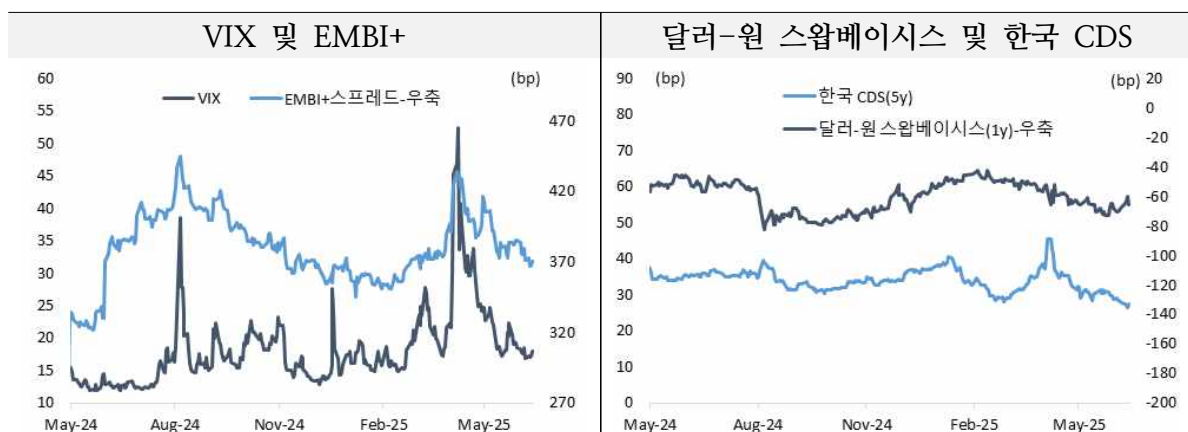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